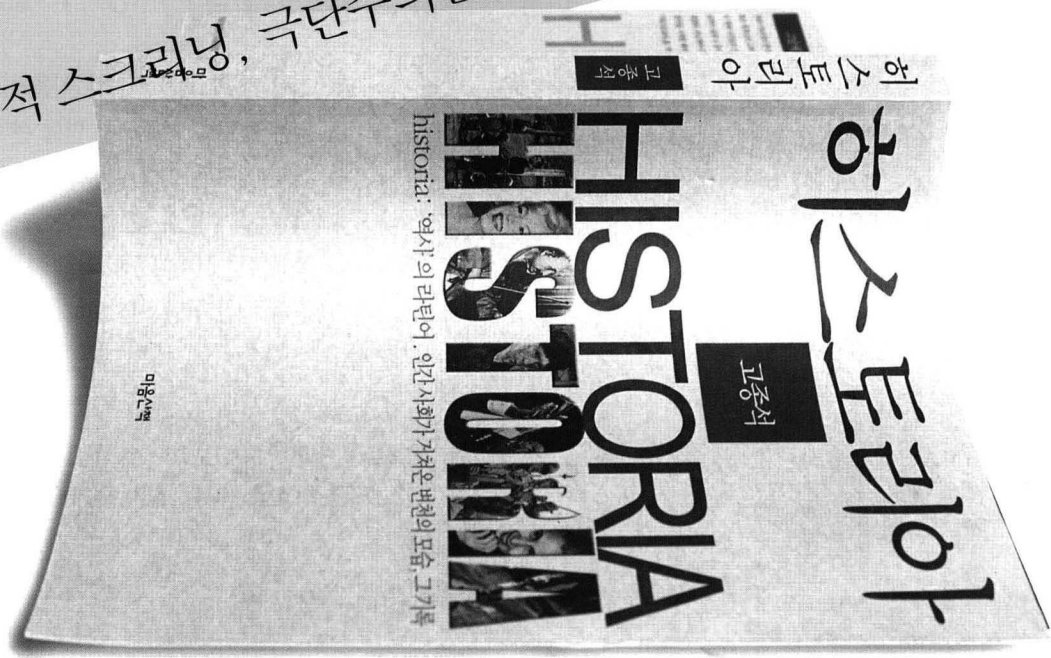


고명섭_한겨레 문화부 출판담당 기자

눈 밝은 기자
- 작가의 주관적 스크리닝, 극단주의를 경계하다



《히스토리아》 고종석 지음 | 마음산책 | 388쪽 | 값 18,000원

고종석 씨의 직업은 기자다. <코리아타임스>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한겨레>를 거쳐 현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내내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도 <한겨레> 파리 주재기자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으니, 그가 성년 이후 대부분의 삶을 기자로 살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에겐 기자라는 직함보다는 작가라는 직함이 더 어울려 보인다. 그는 기사를 쓰는 사이사이 소설을 썼고, 무엇보다 가볍지 않은 수필, 곧 에세이를 썼다.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에 대한 해박한 언어학적 지식, 프랑스 현대철학을 비롯한 여러 철학사상에 대한 끝없는 관심은 그가 작가이되, 어떤 깊이와 논리를 충분히 갖춘 작가임을 보여준다.

그가 가장 최근에 펴낸 책이 《히스토리아》다. '역사' 째름으로 해석될 라틴어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이 책은 그가 <한국일보> 지면에 지난 2000년 11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오늘'이라는 제하의 짧은 칼럼을 날짜순으로 모은 책이다. 역사 속의

해당 날짜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인물의 생멸을 제재로 삼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 지은이가 머리말에 밝힌 대로 "해석보다 정보가 승한" 책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부터 엘비스 프레슬리까지,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부터 걸프전 발발까지, 그리고 여운형부터 김귀정까지 이 책의 오지랖은 참 넓다. 책의 성격이 주관보다 객관을 앞세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은이의 관점과 시선까지 객관의 칼날에 잘려나간 것은 아니다. 아니, 특정한 날짜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인물 중에서 특정한 것을 가려내는 것부터가 이미 주관의 스크리닝일 것이다.

다른 글에서 자세히 밝힌 대로 그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1956년 1월 30일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이 출근길에 암살당했다"로 시작하는 '김창룡' 편은 '우익'이라는 완력과 맹목과 천격의 정치세력에 대한 그의 어쩔 수 없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한다. "김창룡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주류를 자처해 온 우익세력의 가장 흉한 물골을 표본화하고

있다”는 문장은 “김창룡이 관동군 시절부터 익힌 첩보와 공작기술, 그리고 무자비한 파괴·공격 성향은 최고 권력자 이승만의 필요에 적절히 부응했다”는 문장으로, 다시, “김창룡은 군대 정보기관의 우두머리로서 닥치는 대로 적발하고 체포하고 살해했다”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극단주의에 대한 그의 거부감은 ‘좌파’를 바라보는 눈길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20세기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편안하지 못했던 삶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그가 “끝내 ‘정통’ 공산주의자는 되지 못했”음을 지은이는 은근히 강조한다. 그가 불신하고 불편해하는 좌파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좌익을 가리키고, 더 범위를 줄이면 볼셰비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폴란드 출신 독일 좌익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평할 때 보여주는 어떤 신뢰나 애정 같은 따뜻한 감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라는 이름보다 로자라는 살가운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는 이 혁명가는 150센티미터도 안 되는 키에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폴란드·독일·러시아 세 나라의 혁명운동사에 자신의 이름을 피로 새겼다.”

극단의 이념에 대한 그의 반감은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시몬 베유가 한 말, 곧 “자신과 홀로 마주 서 있는 정신 속에서만 사상은 형성된다. 집단은 결코 생각하지 못한다”는 아포리즘을 그가 ‘기억해 둘 말’로 전달할 때 그는 확실히 개인주의자다. 극단을 거부한다면, 그 하위 범주인 파시즘의 거부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유행처럼 번진 ‘일상적 파시즘’이니 하는 파시즘 남용에 대해서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파시즘이란 말은 일상에서도 심한 인플레를 겪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싫은 것은 모두 파시즘이 돼버린다.”

극단의 이념을 배제한 자리에 그가 세워놓는 것은 관용의 사상이다. 관용의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아마도 가장 정확한 문장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미국의 법률가 올리버 웬델 홈스(1841~1935)일 것이다. 지은이가 옮겨 놓은 홈스의 경구는 다음과 같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은이가 신봉하는

자유주의의 진면목이 요약된 문장일 것인데, 그 관용의 사상은 18세기 계몽주의자 볼테르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16세기 자유사상가 조르다노 브루노와 그보다 앞선 〈유토피아〉의 작가 토머스 모어에 이른다. “교회나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생각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결국 장작불 위에서 죽었다”고 소개되는 브루노는 300년을 사이에 두고 홈스와 얼굴이 겹친다.

지은이는 자신을 ‘에세이스트’라고 즐겨 말하는데, 에세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몽테뉴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그가 왜 에세이스트라는 호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말이 최소한 한국 땅에서 얼마나 심한 인플레를 겪고 있는지 느낄 것이다. “자유와 관용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책”, “그 겸허한 표제의 책을 지성의 섬광으로 채움으로써 몽테뉴는 근대적 에세이 장르의 창시자가 됐다.”

몽테뉴 편에서 언뜻 드러나는 지은이와 대상 인물의 유사성 혹은 동일성은 몽테뉴의 지적 후배라 할 17세기 프랑스 ‘모럴리스트’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 편에서 좀더 두드러진다. “우리들의 미덕은 거의 언제나 위장된 악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라로슈푸코의 ‘표어’는 세상만사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지은이의 태도를 닮았다. 더구나, 라로슈푸코의 신중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거의 언제나’ ‘때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개’라는 부사어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사람들 모두가 하잘것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쓸 때, 거기서 지은이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백 명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가장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찬양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 1990년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이다. 그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아니 그보다는 문학평론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을 정신적 스승에 대해 그는 이런 헌사를 써놓았다. “그는 때이른 죽음을 맞기까지 30년 가까운 글쓰기를 통해 한국문학이 일찍이 목격할 바 없는 아름답고 웅장한 비평의 성체를 쌓았다. …고산자 김정호가 땅 위를 걸었던 열정으로 김현은 마음의 공간을 걸었고, 그래서 그가 만든 지도는 ‘대동여지도’ 이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만들어진 가장 정교하고 믿음직한 지도가 되었다.” ■